

# 소련 방사성폐기물회의의 참가 뒷이야기

이 글은 소련원자력학회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 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방사성폐기물회의「Radio-active Waste: Problems and solution」에 참가한 필자가 10일간의 소련 체제중에 체험한 바를 정리하여 차후 소련에 입국할 사람과 소련 원자력계와의 협력사항 접촉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글중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기술회의 내용은 여기서는 가급적 줄이고 급변하는 소련의 사회상과 그속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呂 聖 源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國際協力部長〉

## 1. 「모스크바」로 불러달라

「아득한 시베리아 넓은 벌판에……」라는 친북한 성향의 노래로 느껴왔던 소련을 처음 들어가는 것이라 솔직히 긴장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KAL승무원이 「세관 신고때는 美貨 1불까지 정확히 신고해라, 면세는 술1병과 담배 1~2보르 뿐이다」라고 안내했으므로 입국시 까따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는 의외로 간단히 끝났다. 서류대조검사의는 소지의화검사도 짐보따리 검사도 없이 그냥 통과. 스파시-보(감사합니다).

단지 입국심사관 앞에 섰을때 20세를 갓 넘은 제복의 청년심사관이 입에 손을 대며 담배피는 모습을 하기에 담배한갑을 건네주었다. 「페레스토로이카」의 바람은 「惡貨」부터 먼저 밀바닥에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참고로 입국 절차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입국하는 국제공항은 이름이 모스크바공항이 아니라 「세레메티(Sheremetye)」공항이다. 비행기는 우리의 김포공항처럼 2층 Bording Bridge에 연결된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① 검역(지금은 생략된듯 하지 아니함) ② 입국심사를 하는데 이때 여권과 VISA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끝내고 3枚로된 VISA중 1매는 회수하고 2매만 돌려준다. 소련의 VISA는 여권에 기재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첩모양으로 된 3枚의 종이인데 왼쪽 부터 入國, 出國, 滞在VISA로 입국심사때는 入國 VISA만 회수하고, 出國과 滞在VISA는 돌려주는데 이 VISA용지는 나중에 설명할 세관신고서와 같이 잘 간수하여 出國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保管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비자는 출발전 서울의 소련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초청장과 신청서식이다. 상대국 관련기관의 초청장은 필수적이며 관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두 도시 이상을 여행할 때는 비자의 여행 목적지에 그 행선지 표시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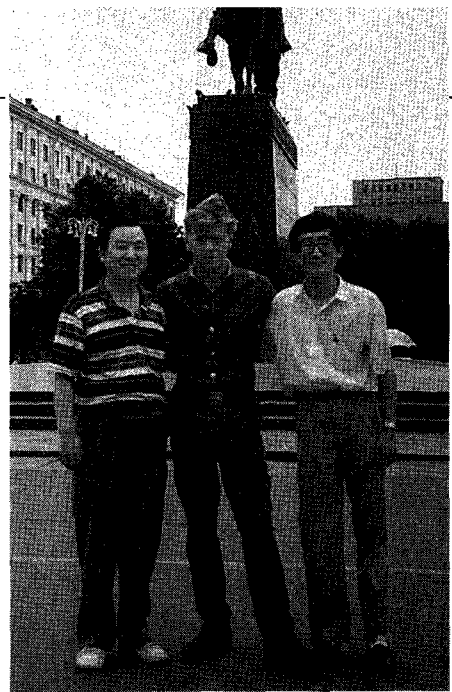
비자 신청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비자신청으로 소정양식에 초청장을 첨부하는데 수수료는 삼만원이고 소요기간은 1주일이다.

둘째는, 특별신청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할때의 경우로서 금액은 5만원이다.

셋째는, 1개월이상 장기체류의 경우로서 소요기간 약 1개월이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Baggage Clain에 가서 수하물을 찾는다. 이것은 일반서방국가와 같다. 그다음에 세관검사인데 여기에는 자기가 가진 외화의 총액을 기입하고 짐의 갯수를 적어 세관원 앞에가면 세관원은 외화총액란에 자기 나름대로의 암호인양 철망모양의 사각형을 그려 표시한다. 얼마전까지는 미국달러 등 외화(Hard Currency라고 부르고, 외국인 전용상점, 외국인 전용식당 등에서도 Hard Cur-



▲ 소련 병사와 함께 프시킨 동상 앞에서

rency라는 팻말을 자주 볼 수 있다)를 검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서류신고로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外貨표시액은 나갈때 똑같은 양식으로 신고하는 外貨잔고액과 비교하여 잔고액이 적어야 하며 만약 어떤 이유로 신고액보다 많게 되면 外貨관리법에 위반되어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 세관검사를 받고 나오면 제한 구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출구 좌측 구석에 있는 환전창구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왜냐하면 모스크바 시내의 호텔도 약50%정도는 환전창구가 없어서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크레믈린궁 붉은광장 앞에 있는 유명한 모스크바 호텔에는 환전상이 없고 聖와씨리寺院 뒤의 우크라이나호텔까지 가야한다.) 환전을 할때는 16절지 크기의 환전신청서에 여권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 도장을 찍어 주는데 반드시 세관신고서 용지에 환전액과 도장을 찍어준다. 금액은 1991년 7월 현재 美貨 1불=27.186르블 이므로 20불 정도만 환전하면 된다. 소련의 평균임금이 250르블이므로 20불이면 소련노동자의 두달치 월급이 넘는다

택시 : 웨레메티空港은 國內선용의 第1, 그리고 국제선용의 第2로 나뉘어져 있는데 출국시

택시운전사에게는 第1이나 第2냐를 말해줄 필요가 있다. 헤레메티공항은 모스크바 中心部에서 35km정도의 北西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도로는 약 15km정도가 우리나라의 준고속도로 모양으로 넓고 교통량도 많지 않다. 시내로 직결되는 지하철이나 전차는 없다. 보통 택시로 30~40分, 버스로는 50分 정도 소요된다. 특별히 예약된 경우가 아니면 택시나 리므진버스를 타야하는데 리므진버스는 국내용인 第1청사에서 출발하므로 외국인은 불가불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리므진버스를 탈 경우는 말실트누이 택시라는 것을 이용해서 第1청사까지 가서 타면 된다. 요금은 1르블 이하).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로는 아무리 멀리가도 시내에서는 10르블이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 달라고 요금을 청구하며 승차거부도 다반사이다. 외국인의 경우 택시는 무조건 10달라를 부르는데 그 절반인 5달라로 흥정하면 무리없이 갈 수 있다. 시내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그렇지 않고 싸게 타는 방법은 호텔정문을 벗어나 큰 길가에 가서 택시를 잡으면 최소 20르블 최고 50르블 정도로 시내 어디에나 갈 수 있다.

모스크바 시내를 달리는 택시는 3종류가 있다. 첫째는 택시지붕위에 만국공통의 상징인 표시등이 있는 것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둘째는 지붕위에는 표시등이 없고 양쪽문에 두줄로 된 점자집단(석유회사의 흑색깃발의 모양)으로 표시한 것으로 대개는 첫번째 택시 보다 소형이다. 이상 두가지는 택시미터기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는 자가용 또는 관용승용차가 영업하는 경우이다. 모스크바의 택시는 요즘 서울에서 처럼 손님쪼미 아니라 택시운전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고 요금은 잘해야 2~3배, 외국인의 경우 10배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흥정 할때 소련어를 모르면 손가락 표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단위가 올라 갈 수 밖에 없다.

지하철 · 버스 · 도로리버스 · 전차 : 모스크

바시내를 다닐때는 지하철이 제일 좋다. 러시아어로는 Metro(Metpo)라고 하는데 현재 9개노선 130개 정도의 역이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역명을 모르는게 탈인데 소련어는 철자대로 발음하면되고, 철자의 표기도 英語표기와 대조하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한두번 타보면 쉽게 익숙해 진다. 뿐만 아니라 치안도 완벽하고 소매치기도 없으므로 한번쯤 自力으로 타보기를 권한다. 요금은 지하철 · 버스 · 전차 모두 15카펙(15전). 단지 지하철은 15카펙짜리 동전(또는 5카펙짜리 3개)를 자동개찰구에 넣고 통과하면 된다. 버스 · 전차는 1르블 50카펙을 주고 타기전에 10枚를 사고 탄다음에 1枚를 구멍뚫이기계(운전수 뒷 좌석에 있음)에 넣고 스스로 개찰하고 나중에 버린다. 우리나라의 옛날 전차와 같은 전차가 시외곽지대를 다니는데 이것은 地下鐵 중점과 버스중점 등은 연결하며 다닌다. 우리를 마중나온 「이골」이라는 「크라차토프원자력연구소」 의전담당과장이 「모스크우」라고 부르는 우리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정확히는 「모스크바」라고 정정해 주었다.

## 2. 호 텔

호텔에 숙박시 서방세계와 별다른 절차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入室 즉 체크인 수속은 여권과 VISA를 제시하면 방번호가 적힌 호텔숙박카드를 교부한다. 여권과 VISA는 체크인 후 2시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데 대개는 보관문제가 어려워 호텔에 그냥 맡겨두는 것이 편하다.

숙박카드를 가지고 해당된 층에 가면 40세 가량의 女人이 책상을 놓고 앉아 있는데 여기서 카드와 방열쇠를 교환한다. 이 아주머니를 「데쥬르나야」 또는 「에따-주나야」(당직자)라고 부르는데 하루종일 자리를 뜨지 않고 근무한다. 각종 심부름도 해주고 음료도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실 감시역인 듯하다.

소련 사람들도 사회안전부 소속일 것이라



▲ 소련의 역사 박물관 앞에서. 뒤의 아이들은 집사들이다.

고 말하는데 사귀어 보면 아주 친절하다. 外出 시에도 반듯이 열쇠와 호텔카드를 교환하여 카드를 가지고 외출해야 한다. 정문에는 경찰이 경비를 하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 동양인들은 쉽게 식별이 되므로 카드 제시 없이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편리하다.

호텔객실내에서는 도난 사고 등이 거의 없으나 아침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벼개위에 올려 놓은 팁을 반듯이 챙긴다. 전화는 방마다 국선 전화가 있어서 방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따로 메모해 두는게 편리하다. 시내전화요금은 객실 요금에 포함되며 별도청구가 없다. 그러나 해외전화는 상당히 어렵다.

해외전화는 두가지 방법으로 할수있는데 하나는 호텔현관에 있는 「Pay Phone」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나 한국은 국가별안내표에도 빠져있고, 실제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는 방에서 교환양에게 부탁하는 방법인데 요금이 비싸다. 10불이상은 각오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싼것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세탁은 각종의 「테르슈나야」를 통해서 청소 아주머니에게 주면 되는데 보통 한가지에 5르불(130원 정도)로 아주 싸며 이 세탁료는 호텔 요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청소아주머니와 직거래 한다. 목욕탕이 항상문제인데 이번에 필자가 묵은 모스크바 「Tourist Center Hotel」

과 「디미트로브그라드」의 호텔 역시 세면기에는 물마개가 없다. 일본참가자인 경도대학의 「히가시」씨는 골프공을 두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련에 여행할 사람은 반듯이 골프공 하나를 가지고 가도록 권해 드린다.

화장실의 휴지는 질이 좋지 않아서 변기속으로 넣으면 막혀 버리므로 휴지통에 넣는데 휴대용 휴지도 여행에 필수품이다. 전기 전압은 220V인데 우리나라의 플러그와 틀려서 등근것이 아니고 100V용 플러그와 모양이 같으므로 100V용 면도기나 라면용 물주전자를 휴대할 사람은 플러그를 가지고 가야한다.

TV는 흑백이 놓여있다. 아침 식사는 빵과 소시지 커피 등인데 1인당 5르불(150원정도)이며 진한 요구르트를 주는데 맛은 없지만 영양가가 높다. 한국음식점은 세곳인데 한국측 사람이 경영한다는 고려정이 시내중심지에 있는 가장 고급이며 손님은 소련사람들이 더 많다.

북한계 주인이 경영하는 오작교는 시내에서 떨어진 뒷골목에 있는데 맥주는 북한산 「룡성」이 나오며 그것도 밤10시 이후에는 재고량이 없어 거절한다. 가격은 1인당 100르불에서 150르불정도 예상하고 가면 된다. 소련에서도 역시 한국음식점은 교포들의 집합장소이다. 한국식당에서는 매번 현지 거주 한국인 또는 유학생들을 만났으며 그중에는 북한계 사람들도



▲ 쿠르차토프연구소. 뒤의 사진은 유공자들

많았다. 오작교에 갔을때는 현지거주 한인청년들이 별실에서 디스코를 추며 파티를 하는 것을 보았다.

TV에서도 뉴스시간외에는 서구에서 유행하는 팝음악을 영상과 함께 방영하고 있었고 호텔2층에 있는 식당에서도 저녁시간에는 3이조 밴드가 비틀즈의 「Yesterday」를 연주하며 손님들은 홀에 나가 자연스레 디스코를 추고 있었다.

### 3. 소련 폐기물 회의의 조직과 운영

이번 소련원자력학회가 주최한 방사성 폐기물회의는 그 정식 명칭이 「The 2nd All-union Conference of the USSR Nuclear Society Radioactive Waste : Problems and Solutions」였다. 첫번째 안내문에는 「The 2nd All-Union」이라는 문구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작년에 국내인만의 폐기물회의를 가졌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논문 초청을 하고 국제회의로 승격 시킨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도 All-Union을 붙인 연구소나 기관이 많아서 물어보니 미국의 Federal과 같은 뜻으로 각공화국 소재의 기관과 구별하는 뜻으로 연방정부산하의 기관 또는 중앙 연구소등에는 All-Union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른다고 한

다. 대회는 6월 25일부터 4일간 계속되었다(표참고).

첫날은 개회식과 Plevary세션을 진행했는데 단상에는 이번대회의 의장인 Oleg K KEDROVSKI(소련원자력학회 핵연료사이클 분과위원장)를 중심으로 학회장 V. V ORLOV박사, 원자력공업성 제1차관 B.V.NIKIPELOV(지난 3월에 제 1차 한·소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로 서울에 왔음), ENS(유럽원자력학회)회장 J. Van Dievoet, FORATOM(유럽원자력산업협의회)회장 등이 Head Table을 구성하였다.

유럽원자력학회나 원자력산업협의회 회장들을 우대대하는 것은 개회세션 도중 ENS Dievoet회장이 밝힌 것 처럼 지난해에 소련원자력학회가 ENS에 가입하여 회원이 된 것에 기인하며 ANS(미국원자력학회)會長인 Dr. Long이 참석했는데도 Head Table에 앉지 아니한 것과는 엄연히 區別된 의전절차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련원자력학회 Orlov會長의 인사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 무기를 감소하고 원자력평화이용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 원자력개발은 전력원의 균형된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된다.

- 세계에너지의 6%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련은 35%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할 것이다.

-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문제인데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안전성 및 공해문제 등에 대해서 그 해결능력이 원자력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NS회장 J. Van Dievoet은 ENS의 활동과 소련원자력학회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하였다.

소련 원자력공업성 차관 B.V Nikipelov은

- 소련의 에너지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문제가 제1과제인데 이것은 Ecological approach로 해결해야 한다.

- 국민은 원자력발전을 폐기물과 관련하므로

〈표〉 소련방사성폐기물회의 세션구성

일자	세션구분	세션주제	발표논문수(국가별)									
			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EC	벨기에	ENS	스위스	합계
6월 25일	개회세션	개회식 및 특별강연	5	2	1		1		1	1		11
6월 26일	세션 1	방사성광석의 채광과 가공에 있어서 방사성생태학적 문제 및 오염지역, 시험지역, 지표 및 지하수의 오염	20									20
6월 26일	세션 2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14									14
6월 26일	세션 3	고준위 폐기물의 조건과 수송, 고준위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미래의 방사성폐기물관리방법										
		3-1 방사성폐기물의 상태조절과 취급	12									12
		3-2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기술	11				1					12
	3-3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개량기술	12										12
	세션 4	방사성폐기물처분의 방사선학상의 문제 : 처리능력의 확보, 방사능의 부담, 모니터링	14									14
6월 27일	세션 5	방사성폐기물처분의 방사선학상의 문제 : 처리능력의 확보, 방사능의 부담, 모니터링	6					1			1	8
6월 28일		소련원자력학회 정기총회/외국인참가자 산업시찰										
합 계			94	2	1		2	1	1	1	1	103

폐기물처리·처분문제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에 많이 노력해야함.

●안정성문제는 정부기구에서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연구프로그램도 정부가 계획수립

-고체폐기물 폐기물처분장건설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며 현재추진중인 것은 개방식(Open Type)과 밀폐식(disclosed Type) 저장시설을 추진

-액체폐기물처리·처분장 별도추진

●특히 폐기물처리·처분기술협력을 위하여 미국, EC, 일본 등 각국과의 공동연구를 희망함.

개회세션에서의 해프닝 소련사람들은 무척 토론을 좋아하고 생활화된 것으로 보였다. 이번회의에서도 논문발표가 끝날때와 세션의 끝

부분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질의자와 질의응답시간에 제한을 거의 두지않아 활발히 토론이 진행되었다.

개회세션 제1부 오전발표가 끝나고 질의시간



▲ Round Table 총괄토론장

에 들어갔을때, 나이많은 학회회원 한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을 향해 소리쳤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지 5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에 취한 대책이 무엇인가?”

“현재 단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체르노빌 설계와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지 않는가?”

순간 장내에는 긴장이 감돌았으나, 의장인 Kedrovski는 질문은 의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러자 투사형의 노인은 단상의 연사석으로 뛰어 올라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다.

“체르노빌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은 집행부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말은 이번대회 마지막날에 있는 학회정기 총회를 겨냥하여 나온것 같기도 하지만 소련국내에서도 체르노빌사고에 대한 문책과 대책이 미온적인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오후에 계속된 개회세션 2부와 마지막날 Round Table총괄토론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성참가자가 같은 맥락의 질의와 원자력의 안정성 및 환경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의장이 곤경을 당하였다.

원자력학회 뿐 아니라 소련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국민들은 구체제에 대한 비판이 강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생각과 논의가 활발하나 각집단의 상층부는 여전히 守舊세력이 점거하고 있으므로 개혁방식과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급진적인 개혁」으로 모험을 하느냐 아니면 점진적인 개혁으로 안정적과정을 밟느냐가 과제라고 우리나라 교포인 유태성씨(소련연방 원자력산업감독국산하 과학기술센터 근무)가 설명하였다.

기술세션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6개분야로 나누워 진행된 기술세션은 논문의 대부분이 회원개인의 연구논문으로 정책논문이 아닌 연구 실험논문으로 일관하였다. 그 성격은 우리나라 원자력학회의 학술논문과 같다. 그러나 질의 토론은 어느 국제학술회의에서 보

다 활발해서 발표논문에서 취급된 실험이 일정한 조건(온도 압력 등)을 전제로 했다면 조건을 변화 시켰을 때의 변화에 대한 실란한 질의 응답이 많았다. 기술세션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부분의 논문이 공동저자 형식으로 발표된 점이다. 우리나라교포 유태성씨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 업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공동연구결과로 발표신청하는 것이 논문선발 또는 채택시 유리하기 때문에 조직의 뒷사람을 공저로 포함시키는 경향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발표자, 여성참가자가 많다는 점이다. 참가자가 제일 많았던 개회식 때 약550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중 50명가량이 여성이었으며 논문발표자 및 공저 인원도 소련측 논문 94편중 10여명이 넘어 여권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였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학회내에서 뿐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의 소련 전체사회에서 그 지위가 신장되어 있다. 우리가 방문한 「크루차토프」원자력연구소내의 「크로차토프」家 박물관의 관장도 40대의 여성이었으며 모스크바에서 「디미트 로그라브」市로가는 참대열차의 차장도 「디미트 로그라브」市에 위치한 「레닌원자력연구소」의 홍보의전실장도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다.

소련측 참가자들의 구성은 소련내의 각 원자력기관의 책임자들로부터 일반직원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지방주재기관의 참여자도 30%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모두 국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산하에 속해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 출장허가를 맡아 왔기 때문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가하고 이탈자는 많지 아니하였다. 중식은 전원 주최측에서 제공하였고, 리셉션과 만찬회는 외국참가자에 한하여 초대형식으로 베풀어졌다.

#### 4. 소련원자력학회

○ 창 립 : 1989년 6월

- 회 장 : Nikolai N. Ponomarev  
Stepnoi(임기 1년)
- 사무국장 : Andrei Yu. Gagarinski
- 주 소 : 123182 Moscow Kurchatov  
Squase, KIAE Secretariate  
of the USSR Nuclear So-  
ciety
- Telex : 411594 Shuga
- FAX : 9430074
- 회원  
단체회원 : 67명  
개인회원 : 1,108명
- 분과위원회(8개)
  -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s-  
sion
  - The Section of the NP Installations  
& Plants
  - The Section of Nuclear Fuel Cycle
  - The Section of Safety
  - The Section of Scientific Principles  
of Nuclear Engineering
  -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  
mission
  - The Commission for Contacts with  
Public & State Bodies

소련원자력학회가 1989년에야 설립된 것은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동기가 되었다. 체르노빌 사고직후 IAEA자문기구 및 서방측학회가 조사지원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빈번히 소련측 당사자들과 접촉하였다.

IAEA 조사단에는 국가대표가 아닌 각국의 학회대표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IAEA 원자력안전국 자문기구인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Advisory Eroup과 미국원자력학회, 그리고 유럽원자력학회였다. 이들은 IAEA의 조사단 또는 독자적 조사지원을 위하여 체르노빌을 방문하였는데 소련측은 창구가 정부기관 뿐이었으므로 학회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학회창설과 운영의 주역은 역시 소련원자력기술의 창시기관인 Kurchatov



▲ 회회장 앞에서 한국출신 유태성씨(필자 왼쪽)와 함께

원자력연구소가 맡았다.

학회정관은 ANS정관과 대동소이하여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승계하는 1년제 명예직이고 사무총장이 전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Orlov박사는 이번대회를 끝으로 6월 28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물러나고 그동안 부회장을 맡았던 Nikolai N. Ponomarev Stepnoi가 신임회장이 되었다.

사무총장인 Gagarinski는 50대 초반의 정력적인 인물로서 Kurchatov원자력연구소의 Deputy Director이고 英語에 능통하고 미국에도 장기체류한 적이 있어 서방세계의 감각에도 익숙한 인물이다. ANS의 전임사무총장 Du Temple에 비교할만하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4월 17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소련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협력각서를 조인하였고 그 첫번째 협력행사로 금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1회 한·소 원자력평화이용 및 국민이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소련의 원자력계는 학회를 통하여 서방세계와의 협력관계문호를 개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방소기간중 한·소 원자력 세미나개최에 관한 실무협의외에 「소비에트 연



방공화국 국가원자력 산업감독국」으로부터 Zugres시(모스크바에서 1,000km에 위치)에 소개한 VVER형 실험로(LSM VVER)의 연구계획에 한국의 연구소가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측 참가대표 Dr. Tepper(이스라엘전력공사 원자력부부장)에게 사본을 전달했다는 것도 통보받았다.

소련학회는 Kurchatov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제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직원을 보장하고 특히 영어통역을 4개월전에 특채하여 이번행사의 의전관계를 전담시켰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만난 소련 상무성 무역국 직원에 의하면 소련연방정부에는 서방세계의 정보입수를 위하여 외국문헌과 정보자료를 번역하고 정리하는 요원이 최근에 급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 5. Hard Currency의 천국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및 독일 마르크를 소련에서는 「하드·카런시」(硬化)라 부른다. 공항에서도 호텔에서도 크레트린궁 입장시에도 그리고 유명한 볼쇼이극장의 입장에도 경화 특히 미국 달러가 있어야 된다. 참고로 환율과 대표적인 물가를 소개한다.

구 분	US\$	소련르블	한국원화
환율	1블	27.6르블	
근로자평균임금	9블57센트	250르블	7,500원
지하철·버스요금	-	0.15르블	4원 50전
호텔아침식사	-	50르블	1,500원
맥주 1캔	-	25르블	750원
볼쇼이극장입장권	30블	828르블	21,900원
핏자·인(1인분)	8블	220르블	5,840원
아이스크림(길가에서)		1.50르블	45원

핏자·인은 소련 내국인에겐 1/10가격으로 판매됨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소련의 화폐가치는 경화에 비해서 형편이 없다. 그러나 배급제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생필품은 싼가격으로 살 수가 있기도 한다. 작년까지 환율은 6대 1이었는데 1개월전에 환율을 변경하여 평가절하가 되었고

화폐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아무도 저축을 하지 않고 소위 사재기를 하고 있다. 상점과 백화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오전중에 재고가 바닥이 난다. 필자일행(외국인 참가자)이 산업시찰 출발전일 9시경에 크레트린역의 유명한 「구르」백화점에 가서 「디스크·콤팩트」를 사려고 했더니 품질이라고 해서 달러로 사겠다고 했더니 1블미만인 것을 1매당 4블을 요구해서 뒷문에서 사게 되었다. 달러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상품이 나오면 「알버트」시장(우리나라의 이태원시장과 같음)의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므로 일반시민들은 살 수가 없단다.

택시운전수가 외국인에게는 달러로만 요구하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무조건 10달러이다. 10달러이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다. 하루 1명의 외국인을 태워도 한달이면 300블. 이것은 근로자의 30배의 수입이다. 우리의 안내역을 맡은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모스크바의 여대생이 택시운전사와 결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크레트린 궁 주변에는 학생行商이 수백명을 넘는다. 그들이 파는 물건은 모스크바올림픽기념주화, 뾰지, 그림, 그림엽서, 군용시계, 관광안내책자 등인데 무조건 달러로만 판다고 우긴다. 행상학생들의 나이는 10세에서 18세 정도의 중학생과 대학생이다. 안내역은 자기 딸도 지금 시내 어디에서인가 행상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소련 시민들은 순박하고 인내력이 강하다. 물건을 살때마다 줄을 서는데 짧아야 20~30분. 「고리키」거리에 인접한 상점에서는 식품가게가 열리기도 전에 100명쯤이 줄을 서고 있었다. 필자도 호기심으로 지켜서서 보고 있는데 계속줄이 길어갔다. 줄을 서면 이득이 있으므로 길가던 사람들이 무조건 줄에 합류한다.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줄이 늘어지고 심지어 냉차장수앞에도 줄이 있다.

핏자·인과 맥도날드가게 앞에서 줄서기의 결정을 보았다. 일행이 핏자·인 가게에 도착

했을때 창구옆에는 두줄로 100명 가량의 시민이 서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일행중 한사람이 포기하고 가자고 했는데 마침 그옆에 출입문이 있고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용기를 내어 들어가니 그곳이 달려로만 먹는 별실이었다. 자기나라 땅에서 자국화폐로는 줄을서서 장시간을 기다려 겨우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먹어야 하고 달라가진 사람은 냉방된 고급식당방에 들어가 먹을 수 있는 기가막힌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의 테모군상이 연상되어 한마디 했다. 「이렇게 순박하고 참을성 많은 이 나라 소련 백성을 이끌로 만든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아동들도 영양부족으로 마르고 기미가 끼었다. 서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만증의 아이들은 볼 수가 없다. 마르고 피곤한 기색의 아이들이다. 흡연인구는 왜 그렇게 많은가. 「인투리스트」 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열두살가량의 소년 둘이 다가왔다. 담배를 달라고 한다. 그뒤에 다시 거지노인이 다가왔다. 담배갑을 달라고 한다. 일행이 담배갑을 주니 그 갑에다 그동안 동냥한 담배를 채워 넣는다. 출근시간이 지난 11시경에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이 많았다. 길거리에도 사람이 많다. 처음에는 지방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설명했는데 나중에는 몇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람없는 평양거리를 사회주의의 국가전형으로 생각해 온 필자였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모스크바로 전입되는 인구가 많다고 한다. 지방은 농업이외의 취업기회가 없고 문화생활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모스크바로 온다.

○국가에서 취업을 시켜주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는 인구가 급증한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직장이탈 현상이 많고, 자영업에 대한 동경이 많다고 한다. 국가가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직 현상이 많은 것이다.

## 6. 희망있는 국민

철의 장막, 브다페스트의 진압 등으로 연상

되어온 붉은 군대의 소련을 연상해온 필자에게 오늘의 소련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산모의 고통을 겪는 나라로 비쳐왔다.

브레즈네프 전수상은 죽은후 30대의 자동차(외국에서 기증받은 것)를 가족명의로 승계하려다가 정부에서 국가재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스탈린·후루시초프 등 역대의 지도자가 죄인으로 평가 되는것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 가장 추앙을 받던 「레닌」도 평가절하 내지는 반역자로서 비판을 하고 있었다. 「레닌그라드」市的 이름을 바꾸자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이미 국내신문에도 소개된 바 있거니와 이번 「디브트르브그라드」의 레닌 원자력연구소의 산업시찰 마지막시간에 레닌의 출생地인 「우리아노브스크」시에서 신문기자가 와서 대담하는 중에 「우리아노브스크」시의 명칭은 레닌의 가족명을 붙친 것으로서 현재 옛 이름인 「심비르스크」市로 개명하자는 운동이 활발하다고 털어 놓았다.

러시아 공산당의 시조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의 물결이 넘치는 소련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소련의 원자력계 인사들과 이야기해보면 자기분야의 일 외에는 전체적인 정보는 전혀 알길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대신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열심이다. 사회조직이 전직을 허락하지 않는 탓도 있지만,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평생을 봉직한다.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과학자들을 잘 관리하면 훌륭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체제가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그들 자신은 전망한다.

농촌에서는 생산량이 넘치는 채소를 모스크바에서는 얻기가 힘이드는 수송체계의 어려움이 소련관료 사회의 병폐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식품가게 앞에서 한두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내력은 변혁의 고통을 이겨 내리라고 생각되었다.